



우크라이나 선교소식 2022.04.10

권영봉, 김정신 선교사

국민은행 : 718201-01-180041 권영봉(신학교)

카톡 ID : stephenk57

귀한 선교동역자 여러분 살롬으로 문안합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온 우크라이나가 전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외신을 통해 확인한대로 키예브 근교 소도시 부차는 민간인 학살 제노사이드가 일어나 온 국민들이 분노하며 온 세계가 러시아군의 야만성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어디 부차뿐인가요? 학교인근 보로잔까 마을은 벨라루스 방면에서 내려온 러시아군이 점령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멀쩡한 아파트를 포격하여(사진) 수백명의 주민이 매몰된 상태에서 최근야야 복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빵이며 마실물, 전기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단결하여 국토를 지키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느라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인 것은 서로 자원하여 입대하느라 지금 훈련소가 포화 상태라서 당분간 징집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서로 먼저 입대해서 전쟁터로 가겠다니 푸친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요.

이제 곧 다가올 돈바스 대회전을 앞두고 양측이 긴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양측의 기갑부대가 자국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돈바스 인근의 주민들은 길이 열려있을 때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퇴로가 막힌 마이우폴 주민 15만명이 전기도 식수도 없이 거의 한 달을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포격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항복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은 전쟁 초기부터 피란민들을 위한 섬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들을 국경으로 실어나르고 있고,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하여 생필품을 방문전달하고 있으며, 목장우유를 사와서 끓이고 소독하여 군인들에게 제공합니다.

교회안의 의사를 동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나가는 피란민들이 언제든지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랑과 환대에 감격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캄캄한 밤인데도 눈에 안보이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폭탄이 비껴 떨어지거나, 총알이 비껴가는 것 같이..." "어떤 중위는 소대원 이끌고 전투중에 기도하는데 즉시 이동하라는 음성을 듣고 자리를 옮겼더니 그 자리가 포격당했다는 생생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교인들과 함께 군사를 위하여 위장막을 만들기도 하고 이웃교회 성도들의 먹거리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하고 성경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예프를 포위했던 군사들이 퇴각하면서 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술 더떠서 시체에다 부비트랩을 연결하여 2차 살상을 노리기도 합니다.

피란갔던 직원이 신학교로 돌아와서 본 실상을 전합니다. 본관건물 1층 유리창이 많이 깨어졌고, 문들도 파손되었고 예배실의 기타도 약탈당했고, 사무실과 교무실에 난입해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선교관은 철제문이 열리지 않자 쇠막대기와 함마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와서 아수라장을 만들었고, 사택에 들어와서는 창문틀에 총질을 해서 유리도 깨지고 창문틀도 다 부서져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러시아군이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교정에 세워둔 3분 선교사님의 차량은 탈취해 갔지만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줄 믿습니다. 다행히 저의 차량은 동네에서 발견은 되었으나 차를 수리해서 쓰기가 불가능하게 부숴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폐차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35만km를 함께 사역했어요.**

전후 국가재건 사업에서 신학교는 현지교회 일군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복구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자유와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후 한국교회가 재건 복구 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교회가 더욱 단합하고 선한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전쟁으로 가족과 이웃이 사망한 분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키려 합니다.

전후 복구작업에 매진중인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용기와 희망을 나누고 고통중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고통을 싸매어 교회가 소망과 생명의 나눔 센터가 되도록 돕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루미늄 출입문 2곳
- *플라스틱 창틀 5곳
- *창문 유리교체 10곳
- *대형금고2개 부속
- *사무실 출입문교체
- *선교관 철문 교체 5곳.
- *보일러실 문과 105호실 문 교체 등

시설담당 니콜라이 형제가 뽑은 견적은 자재값만 약7000불이 나왔습니다. 전쟁전에 비해 물가가 뽕값 기준 4배가 올랐습니다. 물류기반과 생산시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곳의 교량은 다 끊겨져 있어 우회해서 진입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복귀해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제목>

1.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2. 러시아와의 국경 돈바스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주소서.
3. 피난민 사역과 구호사역을 하고있는 형제 자매들과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4. 700만 피난민들(국외300만 피난민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부상자등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5.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직원들과 학생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6.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교회에 크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세계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크라이나 되게 하소서

7.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가 이번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목회자들, 사모들, 여성들, 아동들을 격려하고 치유하는 사역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전문가들과 물질을 연결해 주시옵소서.

8. 권영봉 김정신 선교사가 속히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게 하소서.



학교 뒤편 이웃집에는 불질렸던 무리들이 신학교는 불지르지 않았어요. 물리적 손상이야 시간이 가면 회복되지만 내면의 상처는 오래갈 것입니다. 한국과 해외의 교회들이 영육간에 선한 이웃으로 우크라이나 교회를 향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